



양양소식

2015 03
제 239호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 38년 만에 해제

주민들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 탄력

강원도가 규제완화로 추진해온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이 38년 만에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구 동해고속도로 속초시 조양동~강릉시 주문진읍까지 271만1,000㎡ 면적의 구역결정에 관한 실효고시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976년 현남면 지경리~강현면 물치리간 해안가를 중심으로 구 동해고속도로 노선을 결정하면서 매입한 180만8,000㎡가 동해고속도로 도로구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매각 가능한 부지를 선별하고 구체적인 처분 방침 등을 마련해 내년부터 단계적인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해제된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가 매각되면 부지 내 주택 증·개축 및 영농활동 등 주민생활 불편이 해소되는데다, 토지가치 상승으로 인한 투자가 촉진돼 지역개발도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 동해고속도로는 정부가 지난 1976년 고속도

로 구역을 지정한 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9년 새로운 고속도로 노선을 별도로 지정해 오는 2016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는 가운데 그동안 새 노선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역해제 및 부지 매각을 하지 않아 지역개발 및 토지활용에 많은 지장을 받아왔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고속도로 부지로 매각한 농경지를 재임대해 매년 수십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경작하고 있으며, 주변지가 하락과 건축제한 등의 재산권침해를 받고 있어 효용가치가 없어진 도로부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강원도가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안 규제 3종 세트에 포함해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다.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 가운데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군은 이번 조치에 따라 해안가를 따라 낙산과 하조대, 지경리 등 굽적한 현안사업과 맞물린 지역의 투자유치 및 지역개발 상승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해고속도 양양 용천 제1교 하천폭 확대

주민들 10년간 요구 관철 연내 착공...“범람 우려 해소”

동해고속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태풍 루사 피해로 범람했던 양양 서면 용천 제1교의 제방 폭이 확대된다. 주민들의 끈질긴 요청으로 10년 만에 성사돼 올해 확장공사에 들어가게 됐다.

양양남대천보존회(회장 이태희)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동해고속도로 양양 서면 용천 제1교의 통수단면이 기존보다 크게 넓어져 범람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남대천보존회와 범군민양양C건설투쟁위원회는 지난 2005년부터 태풍 루사로 인해 범람했던 용천 제1교의 교량 폭이 100m에 불과한데, 지름 5m의 교각이 6개나 가설돼 또다시 범람할 수 있다며 하천의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통수단면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난색을 표하자, 주민들은 교

각을 줄이든지, 아니면 기존의 제방 폭을 넓혀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지난 2010년 8월 교각은 그대로 가설하되, 하천 폭을 기존 100m에서 170m로 늘리기로 주민들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사업단은 오는 3월부터 용천 제1교의 교량 가설에 따른 제방 확대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넓어지는 제방은 철근옹벽으로 설계해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태희 회장은 “군민들의 젓줄인 남대천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주민들의 건의가 10년 만에 빛을 보게 돼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 양양에 신규 아파트 건립 양양읍 서문리에 코아루 신축 170세대 2017년 입주 주거환경 개선 등 기대효과



올해 양양에 신규아파트 공사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군은 (주)한국토지신탁이 양양읍 서문리 일원 양양여중고 주변 제방 건너편에 코아루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밝혔다.

(주)동서건설이 시공하는 양양코아루는 대지면적 6,843㎡에 지하1층, 지상18층 건축면적 1,318㎡로 30평형 17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양양코아루는 지난 2007년 일심상스빌 완공 후 8년 만에 규모 있는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으로 신규 주택수요에 부응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아파트 신축은 지난 1996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그동안 추진되지 못하던 것을 지난 2월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추진되는 양양코아루는 지난달 서문리 예정부지에 기초타일 및 부대시설 골조 철거를 완료한 가운데 양양읍 연창리에 모델하우스를 지은 뒤 이달 분양승인 및 입주자 모집 승인을 통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양양코아루는 총 220억원이 투입돼 2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017년 3월 입주 예정이며, 동서·동해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가상승과 고속도로 분기점과 가까워 투자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양양코아루 아파트의 순조로운 공사를 위해 행정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고속화 시대 물류중심지로 투자여건 좋아질 것에 대비해 각종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양양코아루 아파트가 신축되면 그동안 노후화된 주택에 살던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지고 신규 주택수요가 더욱 늘어나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태극기달기 운동 대대적 전개

우리군, 3.1절 및 광복 70주년 기념 추진

정부가 최근 태극기 게양률 높이기 위한 법 개정예 착수한 가운데 우리군도 올해 3.1절 96주년 및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나라사랑, 양양사랑 태극기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 2월 김환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태극기 사랑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23일 오후 2시 소회의실에서 태극기달기 운동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각 읍·면 총무담당과 태극기 선양의무가 있는 관내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민들의 국기게양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관군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나라사랑 양양사랑 정신을 더욱 고취키로 하고 태극기달기 운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태극기 기증사업도 함께 펼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양양양수발전소는 가정용 태극기 100기와 게양용 태극기 30여기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최근상 자치행정과장은 “애국충절의 고장인 우리군에 좀 더 많은 태극기가 휘날릴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에서는 새강원포럼이 연중 태극기 무료 나눠주기 캠페인을 펼쳐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군부대 주민들 불편 해소 앞장”

8군단, 사토 및 퇴적모래 운반

올해 각종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군부대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상생의 효율성 높이기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현북면 중광정리 산23번지 일대에 군부대 훈련장을 조성하면서 발생하는 사토를 영농지원을 위해 인근 마을농지에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토운반 시 필요한 중장비 동원과 이에 따른 유류비 부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군부대(8군단 3500부대)는 사토를 마을농지로 운반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에 따라 8군단과 제1군수사령부, 육군본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전국 최초로 군부대가 15톤 덤프 9대를 비롯해 굴삭기 1대를 1개월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해안침식으로 인해 모래가 다량으로 퇴적된 손양면 오산리의 경우에는 우리군 해양수산과가 인근 공병대에 모래처리를 의뢰, 마침 공병대가 모래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 퇴적된 모래를 처리하면서 1석2조의 효과를 올리기도 했다.

한편 8군단은 지난해 폭설 때 제설작업은 물론 수년간 각종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 영농지원에 적극 참여하며 군부대의 군민화 운동에 나서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고마움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각종 재해 때마다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군부대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앞으로 더욱 상생하기를 기원한다”고 고마워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43억원 조기집행

산림재해 예방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양양국유림관리소장(조달현)가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국비 43억원을 투입, 산림토목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사방댐 5개소 신설 및 3개소 준설, 산지사방 2ha, 계류보전 5km, 임도 6.88km 신설, 임도 구조개량 5.3km, 임도 민간위탁보수 141.07km, 민북지역 산림 5ha 복원 등 산림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및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사방댐, 산지사방, 계류보전 등은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완료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 국비예산의 조기 집행률을 높임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현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토목사업을 우기 이전까지 견고하게 시공해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등에 대비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물치로타리공원 이전 추진 물치항 관광활성화 기대 5월까지 마무리



최근 관광활성화 요지로 떠오르고 있는 물치항 주변의 경관정비와 공간활용을 위해 로타리 공원 이전사업이 추진된다.

물치 로타리공원이 지역의 관문으로 그동안 특색 없어 이정표 역할에만 머물러 왔다고 판단, 경관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현면 물치리 9-3번지 일대(물치 회센터 주차장 도로 맞은 편) 750㎡에 미관을 위한 경관 석축쌓기, 조경수 및 잔디식재, 경계석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이달 중 입찰에 의한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해 5월내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미관개선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조화롭고 개성 있는 공원경관을 창출하는 한편 유휴공간을 활용해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관광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물치 로타리공원이 미관개선과 휴식공간으로 조성되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져 물치해변, 등대, 물치항 회센터 등 주요 관광시설의 이용객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239호 2015. 3. 23(월)

의정소식

의정
소식



선진의회 구현

제206회 임시회 개최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해제 권고 등 13건 심의 의결



우리군의회는 최홍규 의장 주재로 제20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엔 제출된 조례안은 양양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등 총 11건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특히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유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를 권고했다.

양양교육지원센터 개소식 갖고 본격 운영 지난 10일 관계자들 100여명 참석 축하

양양교육지원센터가 지난 10일 오후 3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 김진하 군수, 장석삼 도의원, 김종헌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홍규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정준화 번영회장, 학부모단체 대표 등 100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김태순 초대 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서는 김종헌 속초양양교육장이 참석한 내빈들을 일일이 소개한 뒤 양양교육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의지를 대신했다. 양양교육지원센터는 개소에 앞서 장학관인 센터장을 중심으로 총괄 운영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실장, 영재교실을 맡는 초등교사 1명, 학부모 지원과 학습클리닉, 교육복지, 학생상담 분야의 교육공무원 직 전문가 4명 등 총 7명의 인력 배치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서고 있다.





낙산지역 송림정비 미관개선 효과 관광인프라 구축 도움 상춘철 관광객 맞이 준비

최근 동해안을 따라 송림이 멋지게 정비되면서 낙산 지역의 미관도 한층 깨끗해져 관광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낙산도립공원시설의 정비를 통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낙산해변의 송림 정비 및 잡목제거는 본격적인 상춘철을 앞두고 낙산지역의 이미지 개선에 한몫하고 있다.

특히 고려대 연수원에서부터 구 도립공원사업소까지 준비하게 이어진 송림단지는 이번에 추진한 정비로 인해 더 한층 깔끔하게 단장됐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은 “잘 정비된 송림을 보면서 봄을 느낄 수 있어 정말 기분이 상쾌하다”며 “해변이 아름다운 낙산에 깨끗한 송림까지 정비돼 눈이 즐겁고 기분도 좋다”고 말했다.

낙산지역의 송림정비는 앞으로 추진될 낙산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에 앞서 관광인프라를 돋보이게 하는 기대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관리담당 670-2518

산채산업 활성화 추진 아카데미 강화 운영 현장중심 교육 병행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설악산 그린푸드 산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산채아카데미를 강화해 주민소득증진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악산 그린푸드 산채사업단은 지난해 3월 제1기가 입학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2기 교육생 40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현지농장에서 현장사례 및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교육기간은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8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화요일 2차례씩 1일 4~5시간 총 12회(60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산채 재배·가공 선진지 견학과 산채종류와 특성, 유망 산채류 재배기술, 병해충관리, 산채가공기술 및 음식, 산채 토양관리, 산채재배 복합경영관리 등으로 농가들의 재배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특화사업담당 670-2369





양양송이 명품화 사업 재시동 공판장 일원화·띠지 조정 등 자구책 마련 양양송이영농조합 새 출발

양양송이가 올해부터 체계적인 공판과 유통체계 정비를 통해 명품화 사업에 재시동을 건다.

지난달 첫 회의를 겸한 2015년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 운영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의 송이영농조합과 산림조합 2곳에서 실시하던 송이공판장을 1년간 양양속초산림조합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군은 공신력 있는 산림조합의 위탁 운영을 통해 공판비용을 절감하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바탕으로 투명성을 높여 양양송이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의 회생 기회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또 현재 5등급으로 분류된 양양송이의 지리적표시제 라벨 등급을 1~4등급까지로 제한해 그동안 5등급 일부에서 발생했던 불량송이 민원을 예방, 양양송이 명품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양송이영농조합의 조합원 탈퇴자의 출자금 반환은 법인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해 연말까지는 탈퇴를 보류하고 최대한 수입을 창출해 내년부터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고품질을 자랑하는 특급송이를 선별해 자개장 등 고급 포장재로 고가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하고, 양양송이의 명성을 살려 상황버섯 등 고급 약용버섯의 대행판매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양양송이축제 시 공판장을 개방해 송이선별 및 경매과정을 볼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하고 송이경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송이이벤트도 발굴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의 산림복지과 산림경영담당 670-2719



농업경영인 자녀들 청파장학금 수여 함승희 회장 24회째 지급...농업경영인연합회장이·취임식도

한국농업경영인양양군연합회는 지난달 24일 문화복지회관 소강당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5~16대 회장 이·취임식을 겸한 제24회 청파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제15대 김진동 회장이 이임했으며, 이유허 회장이 취임한 가운데 강원랜드 사장인 함승희 청파장학회장이 농업경영인 자녀 14명에게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청파 함상순장학회는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의 부친으로 우리군농업기술센터 초대 소장과 양양군의회 초대 의장을 역임하고 함상순 옹의 농업발전과 농업경영인들의 자립발전에 힘써온 뜻을 받들어 그의 자녀들이 설립했으며, 지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4명씩 총 336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함승희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농촌과 농업을 깨끗하게 지켜오고 있는 농업인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많은 배움을 이어가 나라와 우리지역의 기둥으로 성장하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귀농귀촌인 농업창업자금 융자 확대

창업자금 3억까지...지역맞춤형 상담도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자금을 확대해 융자 지원된다. 현재 2억원까지 지원하던 토지 구입비 등 창업자금을 3억원까지 늘리고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을 기존 4,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상향해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에 따른 이율은 창업자금의 경우 기존 3%에서 2%로 낮추고, 주택자금은 2.7%를 유지하며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한편 우리군에 유입된 귀농인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51가구 318명이며, 귀농귀촌 종합센터(1899-9097, www.returnfarm.com)에서는 지역맞춤형 귀농귀촌 상담의 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반기에 3월 5일, 4월 17일, 6월 2일 등 3차례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군 이장들 '빈 공간 채우기' 귀감 이장연합회, 올해 일회성 행사 취소 예산절감 동참

“우리 이장들이 빈 공간을 채워드립니다.”

우리군의 이장들이 집행부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동참하기 위해 올부터 일회성 행사를 열지 않기로 해 귀감이 되고 있다.

우리군이장연합회(회장 박필용)는 지난달 16일 회장단 회의를 갖고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보탠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올부터 그동안 관례적으로 열어오던 ‘이장 한마음 대회’와 국내 선진지 비교연수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장연합회는 우리군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미래 성장에 기여하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에 발맞추고 ‘서민 경제 활성화’라는 큰 뜻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계획했던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우리군에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10.7%)가 전국 평균

(50.3%)에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군비 2천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이장 한마음대회와 3천만원이 들어가는 국내 주요 선진지 비교연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체 이장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이뤄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우리군이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비롯해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이 되는 굵직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5천여만원의 군비를 아껴 이를 현안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다.

박필용 이장연합회장은 “이번 결정은 작고 적은 것도 쌓이면 크고 많아진다는 ‘積小成大(적소성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장 여러분들의 순수한 뜻이 담겨져 있다”며 “이장연합회의 이번 중지가 민선6기 군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상 자치행정과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뜻에 경의를 표한다”며 “관례적이고 답습적인 소모성 예산을 절감해 우리군이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감사했다.

세시풍속 즐기며 건강·지역발전 기원

정월대보름 행사 풍성...오곡밥 먹으며 덕담도

민족고유의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 행사가 양양 남대천 둔치를 비롯한 5곳에서 열려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했다.

정월대보름인 지난 5일 양양읍은 남대천 둔치, 서면은 복지회관 광장, 현북면은 하조대 해변, 현남면은 죽도 성황사, 손양면은 동호해변, 강현면은 강선교 일원에서 지신밟기와 지신제, 연날리기, 다리밟기, 망우리돌리기, 달집태우기, 한마당 놀이 등 우리민족 고유의 대보름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양양읍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양양읍농악대가 오후 2시부터 양양시내 상가와 시장을 돌며 연중 태평성대를 기원한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남대천 둔치에서 연날리기, 풍물놀이, 다리밟기, 쥐불놀이, 망우리돌리기, 널뛰기 등 고유의 민속놀이가 열렸고, 저녁 8시에는 지신에게 액운소멸과 지역평안을 기원하는 대형 달집태우기로 올 한해 군민들의 무산안녕과 지역발전을 축원했다.

이와 함께 관내 각 마을별 경로당에서도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곡밥을 해먹으며 덕담을 주고받는 등 정겨운 시간을 가졌다.





“가족 생각하듯 정성 깃든
떡 만들기 매진”

떡살마루 한순한 대표
직원들 브랜드화 구슬떡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 떡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상품화에 나서고 있는 한시루영농조합의 ‘떡살마루’가 한순한(47) 대표의 정성이 더해져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 대표는 정부가 농업인의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 2014년 11월 현남면 북분리에 떡 제조실 등을 갖춘 떡살마루를 오픈하고 5명의 직원들과 함께 전통 떡을 퓨전 떡으로 만들어내는데 구슬떡을 흘리고 있다.

이곳은 한 대표와 직원들이 직접 재배한 오륙미와 찹쌀, 흑미, 서리태, 조, 기장 등 잡곡을 이용해 전통의 맛을 살리면서 건강도 챙기는 웰빙 떡을 상품화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

한 대표가 전통 떡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24년 전. 결혼과 함께 시어머니가 피서철이면 인절미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보고 전통 떡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 그는 틈틈이 자신만의 특색 있는 떡을 만들며 전통 떡의 퓨전화에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2011년부터 우리군의 떡·발효저장음식 공모전에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향토음식 개발요리 참가에 이어 지난 2012년에는 제21회 생활개선회원 녹색식생활 실천대회 요리경연분야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떡은 좋은 식재료와 함께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반’이라는 가치관을 갖고 좋은 떡 만들기에 정성을 들여온 한 대표는 2013년에는 제7회 양양군 향토음식 개발요리 경연대회에 참가해 대상을 수상하는 등 떡에 관해서는 최고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입증 받았다.

한 대표는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당일 생산과 배송을 원칙으로 많은 양을 주문받기보다는 생산 가능한 양을 주문 받아 고객들의 만족도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친구들 온정 삶의 희망을 불어넣다

**양양읍 율리 김택인 씨
50여명 성금 1천만원 모금**

집수리 및 생활비 지원

양양읍 율리 김택인(60) 씨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게 됐다.

김 씨의 친구들은 그의 절박한 사정이 소개되자, 3만원에서부터 50만원에 이르기까지 십시일반 자체적으로 성금을 모금해 1천여만원을 마련했다.

친구들의 정성이 깃든 성금은 현재 우리군이 김 씨의 허름한 집을 고치는데 일부 사용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약값과 정기검진비 등 긴요한 생활비에 보탬 예정이다.

친구 돕기에 누구보다 열심히 나서고 있는 이상구 강원도교육청 운영위원회 자문위원은 “택인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설악신문을 통해 소개되면서 그동안



사정을 모르고 지내던 50여명의 친구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성금을 마련하게 됐다”며 “작은 마음이지만 택인이와 가족들이 희망을 갖고 보다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기원했다.

친구들의 온정을 접수한 우리군은 김 씨의 집수리를 4월 안으로 완료할 계획인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재기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올해 환갑인 김택인 씨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도 94세 노모와 유방암 수술을 한 일본인 부인의 수발을 들면서 중학생 딸의 뒷바라지까지 해내며 간신히 삶의 끈을 놓지 않고 버텨내고 있다.

특히 그는 딱한 사정을 익히 들은 이건필 양양자활센터장의 주선으로 현재 재활용사업단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잔잔한 봉사로 노인들에 용기 북돋아” 정념스님 · 무산복지재단 연중 노인위로 봉사활동 매주 1회 배식봉사

우리군의 사회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있는 무산복지재단과 정념스님이 소리 소문 없는 봉사활동을 펼쳐 미담이 되고 있다.

정념스님은 지난달부터 매주 1회 양양군노인복지관을 찾아 손수 점심 배식봉사를 하며 이곳을 찾는 노인들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고 있다. 특히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찾아와 정성껏 점심을 나르며 일일이 노인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도 챙기는 등 살가운 말벗이 돼주며 용기를 북돋우고 있다.

무산복지재단은 앞서 지난 16일 노인복지관에서 ‘설맞이 나눔 큰잔치’를 열고 관내 노인들을 위로했다. 이사장인 정념스님은 이날 오전 11시 양양군노인복지관에서 종사자들과 함께 유니폼을 입고 700여명의 노인들에게 일일이 급식봉사를 펼쳐며 한결같은 지역사랑을 실천에 옮기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더욱이 이날 복지관을 방문하지 못한 5개면 지역 124개리의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설 선물을 전달해 고마움을 샀다.

정념스님의 선행이 알려지자, 이곳을 찾은 노인들은



“갈수록 노인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위로를 해주니 정말 기쁘고 고맙다”며 “정념스님이 우리 같은 노인들의 처지를 잘 헤아려 용기를 주니 정말 행복하다”고 칭송했다.

무산복지재단은 낙산사 산불 이후 정념스님이 조실스님의 뜻을 받들어 창립했으며, 연중 노인복지에서부터 아동복지까지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헌신하는 등 든든한 복지안전망으로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정념스님은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지역이 밝고 풍요로울 수 있다는 조실스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행복한 복지사회 만들기에 신명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베를린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독주회 열연

이서현 씨 성공적 공연 국위선양 한몫



양양에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서현(27) 씨가 지난 1월 12일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독일 베를린필하모니 오케스트라 홀에서 초청 독주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왔다.

그는 현지인 관객 4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트라우스 바이올린 소나타와 브람스 등 총 3곡을 1시간30분 동안 열연해 박수갈채를 받고 앙코르 연주로 화답했다. 특히 이번 초청 독주회는 세계 3대 오케스트라인 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으며, 세계적 무대에 서서 당당하게 실력을 발휘해 국위선양에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25일 기자와 만난 이서현 씨는 “클래식의 고장에서 개인 독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고 보람이 컸다”며 “처음에는 떨리기도 했지만 수많은 관객들이 제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의 선율에 맞춰 감상하고 빠져드는 모습에 더욱 힘을 내 마칠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미국 카네기홀에서 초청 독주회를 성황리에 마친데 이어 이번에 유럽 무대에서 성공적으로 독주회를 가진 이 씨는 그동안 양양에 정착한 뒤 바이올린 재능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고 있으며, 지난 2일부터 강릉 강원예고 바이올린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활동한 다양한 경험을 살려 후배 양성과 지역사회 공헌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다양한 공연을 펼칠 계획”이라며 “자연이 조화로운 설악권에 걸맞은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데 더욱 열심히 임하겠다”고 미소를 지었다.





3.1절 96주년 독립만세 열 기러

만세고개서 독립운동 의미 되새겨

지난 1일 우리지역에서는 제96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려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했다.

이날 오전 10시 양양유도회 주관으로 김진하 군수와 최흥규 의장, 장석삼 도의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흥기 열사 등 33인의 위패가 봉안된 충열사에서 3.1절 열사추모제 및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어 3.1만세운동 유적비가 있는 현북면 기사문리 만세고개로 이동해 유적비 분향과 유족대표의 독립선언문을 낭독, 삼일절 노래제창 및 만세삼창을 가졌다.

김진하 군수는 추모사에서 “나라를 잃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분연히 독립을 쟁취하고자 일어난 애국열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존재한다”며 “선조들의 빛나는 애국충절을 이어받아 더 강하고 풍요로운 우리군 건설에 군민들 모두 힘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제20회 양양군민문화상 후보 공모

5개 부문 이달 말까지 추천



이달 말까지 '제20회 군민문화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추천부문은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 체육부문 등 5개 부문이며, 자격은 양양군에 거주하거나 본적을 둔 관외 거주자로, 부문별 관계기관장의 공적 증빙서류를 첨부해 추천하면 된다. '문화예술'은 문화예술, 교육, 언론, 출판 등이며, '지역개발'은 관광, 수산, 상업, 농업, 건설, 농촌개발, '사회봉사'는 사회사업, 효자효부, 군민의 복지증진, 언론계도, '학술'은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체육'은 우수 체육선수 지도육성,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각종 체육대회 출전으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우수선수과 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추천접수를 받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5월중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며, 오는 6월 개최되는 제37회 현산문화제 개막식장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670-2728

셋째 이상 지원 강화 고교 학비·대학 신입생 입학금 지원



우리군이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늘리기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인구늘리기 효과성 높이를 위해 셋째 이상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와 대학 신입생 입학금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되며,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제한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자녀 장학금은 교육부가 인가한 고등학교, 국내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 고등학생은 학비전액을 연 4회 지원하되, 특성화고 학생과 종합고등학교 전문계 학과 학생 등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생은 사이버 대학을 포함, 정규 학사 학위 취득과정에 입학한 만24세 이하 대학생 자녀들에게 등록금 100만원이 지원되며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인구/건강

실질적 인구증가 대책 마련 추진

인구대책위원회 발족 본격 활동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환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인구증가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13일 지역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대책위원회의 첫 회의를 갖고 지난 2003년 3만명 붕괴 후 갈수록 감소하는 인구수 늘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양양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도시 발전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군의회, 군부대, 경제단체, 기업체, 유관기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늘리기 전략 및 시책 발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사람이 모여드는 활력 넘치는 도시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존시책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을 입안해 면밀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담인력 배치 및 지역홍보 콘텐츠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패적인 도시정주여건 개선 △교육의 경쟁력 강화 △출산과 자녀양육 환경 조성 △다문화가정 정착지원과 셋째아이 지원확대 △베이비부머세대의 유치전략 △유동인구의 상주성 강화, 군민 자긍심 고취 등을 중점과제로 역할분담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범사회적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김환기 부군수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단기처방보다는 지속적인 유입이 가능한 근본대책이 실효적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군새마을회 도서 270권 기증

군부대 도서보내기 운동 일환으로

우리군새마을회(회장 김주호)가 지난달 우리군에 270권의 책을 기증했다. 이번 도서 기증은 군부대 도서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양양군새마을회는 관내 군부대 장병들의 교양 증진에 동참하게 됐다. 우리군은 기증 받은 도서를 강원도 문화도입운동협의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이주호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더불어 함께 사는 제2의 새마을운동 부흥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무료 클리닉 받고 꼭 금연하세요"

군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우리군이 올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무료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보건소는 최근 담뱃값 인상과 모든 음식점의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는 금연 시도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금연클리닉을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연프로그램 등록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금연실천 관리와 상담, 일산화탄소 측정 등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해 '금연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연클리닉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6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금연상담을 실시하며 니코틴 보조제, 기초 건강측정 등을 제공하며 클리닉 등록 후 단계별로 일산화탄소, 니코틴 측정 완료 자에 한해 4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하면 홍보물품을,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하면 5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한다.

한편 보건소는 전반적인 금연운동의 정착을 위해 사업장, 군부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보건소 금연클리닉(670-249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239호 2015. 3. 23(월)

망갈렘

사라져가는 양양바다의 진정한 '슬로우푸드'

온갖 삶의 무게와도 같은 봄 바다의 미각 '누덕나물'

2,500년 전, '공자의 밥상'에는 절대 입에도 대지 않으니 올릴 수가 없었던 아홉 가지 성질의 음식이 있었다고 한다. 제 본래의 빛을 잃은 음식, 두껍게 썰은 생선회, 냄새가 나쁜 음식 등이었는데 이중에서도, 공자의 절대적인 불가식(不可食)은 제철 음식이 아니면 입에도 대지 않았던 제철 지남 음식이었다. 제철에 나는 음식만큼은 반드시 제철에 먹어야 했던 고집 때문이었을까, 그는 당시 78세의 나이로 천수(天壽)를 누린 사람이 되었다.

제철 음식에 대한 소견은 비단, 공자만이 아니었다. 고려 백성들이나 나랏님도 공자만큼이나 제철 음식을 신성하고 귀하게 여겨, 제철에 나는 첫 과실이나 농수산물등

을 신위(神位)에 바쳤는데, 이를 천신(薦新)이라 하고, 일 년 열두 달마다 제철 음식으로 정한 것을 천신품목(薦新品目)이라 했다. 그 품목 중에는 동해안에서 나는 것으로 청어, 오징어, 은어, 대구, 문어 같은 어패류는 있는데, 바다나물류는 빠져있다. 지금이라도 양양의 바다에서 나는 바다나물로 천신품목(薦新品目)을 하자면, '누덕나물'을 신위(神位)에 바칠 만하다.



황영철 강원도외식저널 대표

구차한 이름으로 홀대받는 '누덕나물'은 양양바다의 진미

봄나물이라 하면, 삶고 데치고 볶아 냐어도, 뿌리라도 베어 물면 오금거리는 향이 짙고, 부드러운 맛으로 100살 먹은 노인도 먹을 수 있어 백세羹(百歲羹)이라 부르는 '냉이'가 봄나물로 으뜸이요, 단 박에 입안에 퍼지는 짙은 향이 미묘한 맛을 내는 '쑥'과 함께, 알싸름하게 톡 쏘는 매운맛이 마치 계집이 흘기는 눈초리처럼 미각을 자극하는 '달래'가 3대 봄나물이다. 어디 이것만이 봄맛을 독차지하는 성역의 봄나물이라. 그 물밀을 알 수가 없으니, 그저 바라 볼 뿐이라 '바다'라 이름 지었는지 모를, 바다에도 분명 봄은 오고, 그 봄을 따라 돌아나는 제철 나물이 있다. 바로 양양의 갯바위 물밑에서 제철마다 돌아나는 파래, 돌김, 고르매, 보리해동이라 불렀던 톳, 지누아리 등이다. 오래전만해도 양지 바른 담벼락을 따라 이런 바다 나물을 뜯어다 말리던 부지런함도 사라지고 나니, 그 맛도 기억이 나질 않아, 이제는 귀한 바다나물이 되어버렸다. 바다나물도 산나물처럼 아무 바위에서나 돋지 않고, 짹고

가늘게 찢쭈찢쭈한 '고르매'는 파도가 없는 안쪽에서 피고, 파래와 김은 이보다 한 발치 앞선 물밑에서 돋으니 이에 따라 그 맛의 풍미도 서로 다르다. 양양의 바다 나물은 크게 '누덕나물'과 '고르매 나물'로 나뉘는데, 김, 고르매, 파래 등을 혼합하여 뜯어다, 누더기처럼 막 섞어 말린 것을 '누덕나물'이라 하고, 막대풍선처럼 마디마디 속에 물이 들어 있는 고르매만 말린 것을 '고르매나물'이라고 한다. 음력 동짓날부터 음력 2월까지가 질감과 풍미가 가장 좋아, 맛이 제철일 때이다. 이때를 놓치면 고르매는 돌가루나 모래가 들어가고, 김과 파래는 질감이 억세지고 누렇게 색이 변한다.



솔가지에 들기름 묻혀 구워 먹어야 제 맛

누덕나물이나 고르매는 빈 전복껍질이나 가는 철사망치로 만든 도구로 긁거나 훑어내듯 뜯어내지만, 이렇게 뜯은 바다 나물은 산나물처럼 곧바로 먹을 수가 없이, 공(功)이 많이 들어간다. 집에서든 갯돌에서든 보들보들 해질 때까지 얼기설기 쪼어가며, 모래나 돌부스러기를 골라내고, 빨래를 하듯, 바닷물을 몇 번이고 부어가며 씻어내고, 행귀 낸 후에야, 김 발 위에 부쳐 양지 바른 곳에 세워 말린다. 이렇게 말린 누덕나물은 짹도름한 식감 뿐 아니라, 그 향만으로도 입맛을 다시게 하는 양양바다의 슬로우푸드라 할 만한 '누덕나물'이 만들어진다. 두툼하게 말린 '누덕나물'의 맛과 향은 양식 김에 비할 바가 아니다. 솔가지로 들기름을 바르고, 은근한 잿불에 슬쩍 굽기라도 하면, 바삭바삭하게 씹히는 맛도, 입속의 고소함도 어느 것 하나 허투루스럽지 않아 왕의 산해진미가 부럽지 않을

봄 바다의 별미이다. 꾸미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먹거리 하나가 양양의 갯바위에 봄이면 제철 나물로 돋는다. 어느 날인가 만리장성 같은 방파제에 막히고, 갯바위가 더 이상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맛봐야 우리 지역의 토속음식이요, 향토음식이다.



생활정보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은 오산리 유적지에서 출토된 신석기시대 유물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신석기시대 생활상을 눈으로 체험하고 학술적 가치를 알게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문의 및 단체관람 예약
033-670-2442 www.osm.go.kr



관람시간 9:00 ~ 18:00
휴관일 연중무휴
관람료 어른 1,000원 / 청소년·군인 500원 / 어린이 300원
해설시간 10시, 11시, 14시, 15시, 16시 (5회)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양양소식지는 군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독자마당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의 미담이나 시, 수필 등 잔잔한 사연이나 글을 보내 주시면 편집자 회의를 통해 엄선해 정성껏 실어드리며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양소식지의 독자참여가 안정화되면 앞으로 다양한 지역소식을 전담해 전할 수 있는 해오름 기자단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 jubiang@korea.kr

▶문의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670-2223

재미있는 유물 이야기! <2>

인류, 가장 아름다운 얼굴

신석기시대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1977년 오산리 주변에 있는 호수(쌍호)를 매립하여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 모래언덕의 토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물



흙으로 빚은 사람얼굴[土製人面像]

이 발견되었다. 그 후 서울대 박물관팀에 의해 1981~1987년까지 6차례발굴조사과정에서 양양바람은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귀한 유물 한 점을 선물해 주었다.

그것은 가로 4.3cm, 세로 5cm 크기의 둥근 점토판을 손가락으로 눌러 표현한 것으로 두 눈과 입은 깊게 누르고, 코를 살리기 위해 양 볼 부분을 가볍게 눌러 표현하였다.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이것을 만들었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기신상의 하나로 다산[多産], 풍요[豊饒], 재앙[災殃]으로부터 보호를 기원하였던 씨족수호신으로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희귀한 예술품으로도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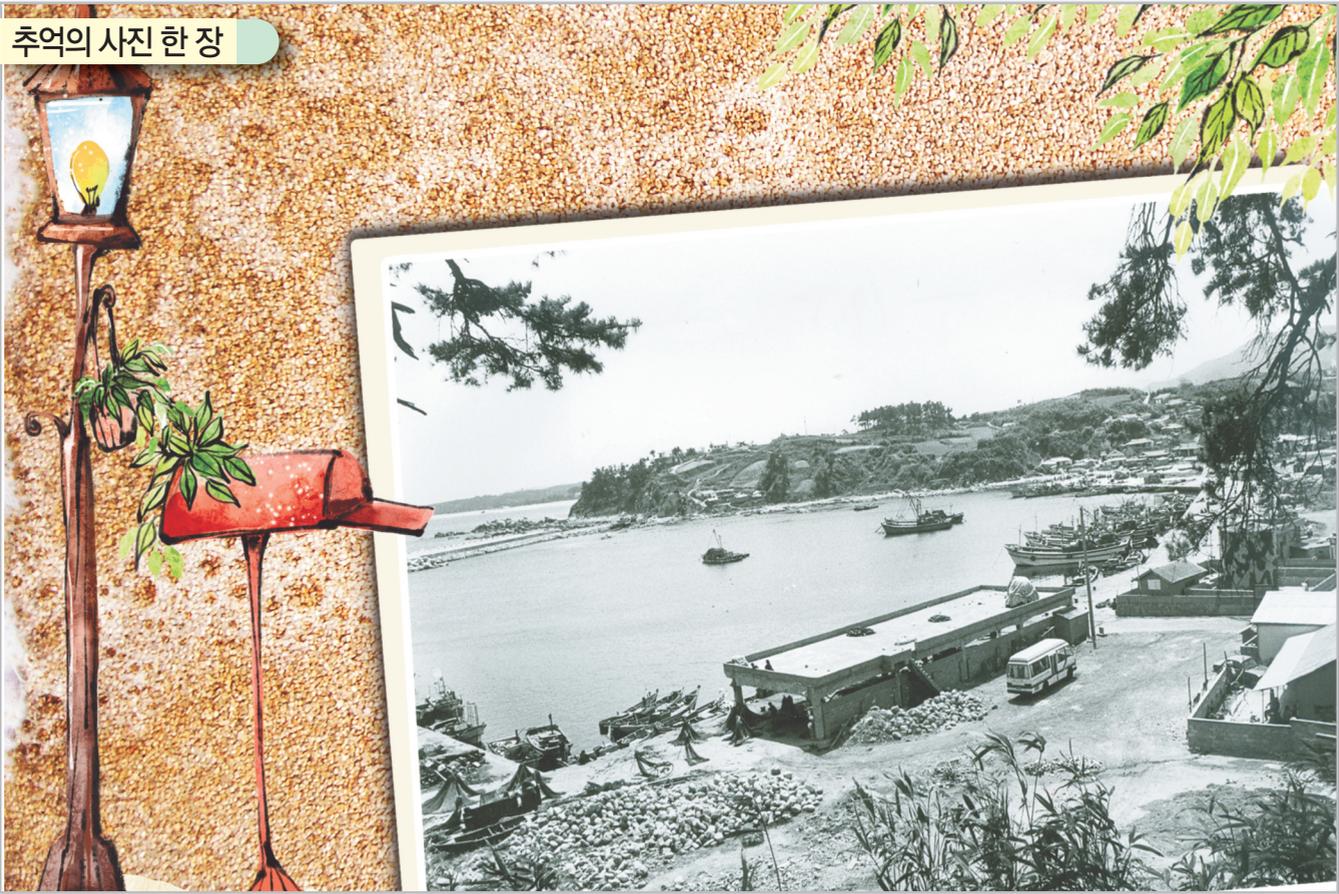
흙으로 빚은 사람얼굴인 '토제인면상'은 점토판을 눌러 사람의 얼굴모양을 만들었지만, 마치 그 모습에서는 강인함과 참신한 인상, 활기찬 모습 그리고, 온화하면서도 부드럽고 은은한 미소처럼 신석기인들의 소박함과 순수함이 느껴진다. 또한 감자를 눌러 놓은 듯 웃음을 자아내게 하며, 영뚱한 표정의 천진난만한 아이의 얼굴 같다.

이처럼 신석기인의 영뚱하고 우스꽝스러운 미소를 느껴보고 싶다면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에 오셔서 그 심오한 표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람문의 : 670-2442



추억의 사진 한 장



그때 그 시절
1988년의 남애항 전경

강원도 3대 미항인 남애항의 1988년 4월24일 촬영한 사진. 지금과 비교하면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내일 바다에 놓을 그물을 손질하려는 보망작업을 앞둔 그물이 이채롭게 걸려 있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결과

- 양양농협 - 신창선
- 서광농협 - 김영하
- 강현농협 - 김일수
- 하조대농협 - 홍덕봉
- 양양속초산림조합 - 정용환
- 속초양양축협 - 이종율
- 양양수협 - 김영복



이번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88.7%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가장 많은 후보자가 출마한 양양속초산림조합장에 정용환 전 서면장이 당선됐다.

서광농협은 김영하 전 서광농협 상무가 유효투표수 1,015표 중 454표(44.7%)를 얻어 당선됐으며, 강현농협은 김일수 전 양양군의회 의장이 유효투표수 982표 중 455표(46.3%)를 얻어 초선에 성공했다. 하조대농협은 홍덕봉 전 하조대농협 전무가 유효투표수 1,031표 중 과반수가 넘는 557표(54%)를 획득해 두 번째 도전 만에 당선 고지에 올랐다. 양양농협은 신창선 현 조합장이 유효투표수 1,519표 중 836표(55%)를 얻어 지난해 보궐선거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다.

양양군수협은 김영복 현 조합장이 유효투표수 442표 중 216표(48.9%)를 획득해 역시 재선 고지를 밟았다. 속초양양축협은 이종율 현 조합장이 지난 2009년에 이어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으로 3선 고지를 밟았다.



농사정보

4월 농사정보



상순 식량작물 · 원예특작 · 축산

식량작물	1. 상토준비 및 산도검정 의뢰 : 건조흙 500g (기술지원과 : 토양검정실 ☎670-2437)	축	1. 축사청결 및 정기적인 소독 2. 소 살찌우기 (비육우) : 배합사료 체중의 2% 3. 곤충 매개성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모기, 파리 등) : 아까바네병 4. 소 브루셀라병 1세이상 암소 전 두수 검사 (연 1회이상) ※ 매주 수요일은 축사소독의 날 ※ 매주 수요일은 축사소독의 날
	2. 논 깊이갈이, 규산질비료, 볏짚 및 퇴구비 주기 3. 봄감자 재배관리 : 비닐피복재배 4. 찰옥수수 파종 : 1.0~1.5kg/10a - (1주 1립)		
원예특작	1. 하우스 채소 온·습도관리 ○ 열매채소 : 최저 13℃, 앞채소 : 10℃이상 2. 마늘 웃거름주기 : 요소 17kg/10a, 염화加里 12kg/10a 3. 배 높이접 : 우량 품종개량 4. 표고버섯 종균접종 및 균사배양(온도15~20℃, 습도 70%이상) 5. 상추 아주심기 : 20×15cm (본엽 4~5매) 6. 대파 파종 : 육묘상, 트레이 (150,000립/10a)	산	



중순 식량작물 · 원예특작 · 축산

식량작물	1. 못자리 설치 : 종자소독, 씨앗담그기, 싹틔우기 2. 규산질비료, 퇴구비 주기 : 모내기 15일전 3. 고구마 온상관리 : 온도 12~15℃, 습도 85~90% 4. 찰옥수수 파종 : 1.0~1.5kg/10a (1주 1립) 5. 녹비작물 예취 및 절단 사용 (경운) -늦어도 모내기 2주전 실시	축	1. 한우 피부손질 및 일광욕 및 내부기생충 구제 2. 풋배기 호맥 수확 및 이용 3. 가축질병 예방 실시 4. 소 브루셀라병 1세이상 암소 전 두수 검사 (연 1회이상) ※ 매주 수요일은 축사소독의 날
	1. 시설하우스 고온 예방관리 (30℃ 이상시 환기) 2. 고추 육묘상 관리 : 모가 웃자라지 않게 환기 철저히, 총채벌레 방제 3. 마늘밭 비닐제거 : 저온 25℃ 이하 유지 4. 배, 복숭아 꽃봉오리 숙기 : 적정 착과수 확보 5. 깎지벌레, 응애, 총채벌레류 등 화목류 해충방제		
원예특작		산	



하순 식량작물 · 원예특작 · 축산

식량작물	1. 논 종합개량 및 맞춤형비료 사용 2. 못자리 통풍 및 물관리 3. 규산질비료, 퇴구비 주기 : 모내기 15일전 4. 고구마 냉상 자재준비 (모판면적 : 본밭 10a당 10㎡) 5. 찰옥수수 파종 및 포장관리 : 1주 1립 6. 친환경농업 자재준비 : 목초액, 토양개량제 등	축	1. 담근먹이용 옥수수 파종 : 3.5~4kg/10a 2. 풋배기 호맥 수확 및 이용 3. 소 기립불능증 질병예방 : 광물질 및 영양제 보충급여 4. 소 브루셀라병 1세이상 암소 전 두수 검사 (연 1회이상) ※ 매주 수요일은 축사소독의 날
	1. 고추 터널재배와 조숙재배작형 아주심기 ○ 아주심기 7~10일전 모 굳히기, 밀거름주기 ○ 고추전용 멀칭비닐을 덮어 지온 높여 주기 2. 배, 복숭아 꽃봉오리 숙기 및 배 인공수분 작업 3. 느타리버섯 재배 : 종균접종 및 배양(25~28℃, 70~75%) 4. 표고버섯 종균접종 및 균사배양 : 온도 15~20℃, 습도 70%이상		
원예특작		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 : 670-2701
농촌개발 : 670-2336
생활자원 : 670-2338
농산물유통 : 670-2703
축산정책 : 670-2705
축산경영 : 670-2438

힘찬도약! 명품도시 양양

양양군농업기술센터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 전화 : 033) 670-2701, 670-2366

www.yangyangmall.co.kr

기술지원과

작물환경 : 670-2366
인력육성 : 670-2337
농업기계 : 670-2958
원예작물 : 670-2367
특화사업 : 670-2369
기술연구 : 670-2368

2015년도 개별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 ◆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시·군·구의 용도지역별로 주택의 구조 및 부속토지의 특성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각각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그 가격을 공시하며
 - 시·군·구청장은 개별주택의 특성과 유사한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 부속토지 및 주택 구조 등의 특성을 비교하여 특성 차이에 따른 배율을 적용, 각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공시합니다.
- ◆ 개별주택가격(부속토지 포함)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 양양군수는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 차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배율을 적용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며(→ 개별주택 산정가격)
 - 산정가격의 적합성과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을 감정평가사에게 검증을 받은 후(→ 개별주택 검증가격)
 - 개별주택 소유자에게 열람토록 하고 가격 산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로 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감정평가사에게 재검증 절차를 통하여 가격을 재산정 하여(→ 개별주택 열람가격)
 -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가격을 결정합니다.(→ 개별주택 결정가격)
- ◆ 개별주택가격 인터넷 열람안내
 - 양양군청 홈페이지에서도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의견제출서 제출 요령
 - 기 간 : 2015년 3월 11일~2015년 3월 31일(20일간)
 - 제 출 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 제출방법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 (※ 우편접수 가능)
- ◆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2015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유자녀 장학금 선발 안내

- ◇ 신청자격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정된 가정
- ◇ 장학금 지원내역
 -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중학생 :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장학금 지급(연 4회 지급)
 - 3월 접수자(4월말, 5월말, 10월말, 11월말에 장학금 지급)
 - 4월 접수자(5월말(1,2분기지급), 10월말, 11월말에 장학금 지급)
- ◇ 신청기간 : 2015. 3. 2.(월) ~ 2015. 4. 20.(월)
-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신청
 - 주소 : (200-933) 강원도 춘천시 동내로 10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 전화 : 033)261-5000, 담당자 : 이정화 차장
 -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 접속 후 바로가기에 피해지원 클릭

장학회 소식

2015. 1. 2 ~ 3. 24 기간 중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단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	2,000,000
'강릉최가두부대표 최종성'	2,000,000
건양회	1,020,000
대진건재 대표 김철수	1,000,000
건축사랑회	1,000,000
현남면이장협의회	1,000,000
맥산주유소	2,000,000
양양군청 양양고동문회 일동	5,000,000
강원여성대학 양양총동문 일동	500,000
양양군청 해양수산과 직원 일동	1,000,000
동심회	2,000,000
양양하수종말처리장	5,000,000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1,000,000
양양향우회 회원 일동	1,000,000
설악산느타리영농법인 대표 정재길	1,000,000
대한축량협회 양양군 분회	1,000,000
오륜전기통신주식회사대표 송미애	2,000,000
현북면 이장협의회 대표 고성길	1,000,000
강원대학교 수련원 조철희 원장	1,000,000
양양속초산림조합 정용환 조합장	10,000,000

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 ◆ 주요 개정 내용
- 신고처 : 세무서(종전)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변경)
- 과세표준과 세율

<종전>		<변경>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총결정세액	10%	2억원 이하	과세표준 ×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과세표준 × 2%
		200억원 초과	3억9,800만원 + 과세표준 × 2.2%

- 신고·납부

구분	신고기한
내국법인 확정신고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제103조의23) - '14년 12월말 결산법인 : '15. 4. 1 ~ 4. 30
연결법인 확정신고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제103조의37)

- ◆ 과세체계 개편 전·후 주요 신고·납부 변경사항

구분	개편 전	개편 후
신고 납부 기한	· 확정신고 - 일반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 연결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 + 1개월 · 법인세 세액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 + 1개월 ·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 + 1개월	· 확정신고 - 개편 전과 동일 · 청산소득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 · 법인세 세액결정·경정, 수정신고,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과 동일(외국법인 신고기한 연장 제외)
신고특례	· 별도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신고서 첨부서류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계산내역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산금액처리기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등

-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쉽게 납부 가능
- 문의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033)670-2274

게시판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에 따른
주류·담배 판매 소매업소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의무 홍보**

- 근거 :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12534호, 2014.3.24 공포.2015.3.25.시행)) 개정으로 2015.3.25일부터 주류·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됨
- 표시의무 대상업소
 -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자
 -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자
- 위반 시 처분절차
 - 1차 위반 적발 시 : 표시부착명령
 - 2차 위반 적발 시 : 과태료 100만원 부과
 - 3차 위반 적발 시 : 과태료 300만원 부과
- 게시 장소 : 영업장안의 가장 잘 보이는 곳
- 표시문구 및 크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 가로 : 40cm, 세로 : 10cm
- 표시문구 스티커 제작 및 배포
 - 우리군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스티커제작에 따른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사전에 표시문구 스티커를 제작하여 읍·면 사무소 청소년업무 담당자들이 대상업소에 배포하고 있음
- 스티커 문의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민원계 청소년업무담당자

구 분	연락처	비고
양양읍사무소	670-2610	
서면사무소	670-2334	
손양면사무소	670-2636	
현북면사무소	670-2394	
현남면사무소	670-2655	
강현면사무소	670-2415	



남설악구조대 산악안전 기원
오색서 기원제 지내...“등반객 안전 최선”

대한적십자사 남설악산악구조대(대장 박은식)가 지난 11일 오전 11시 오색리 주차장에서 산악안전기원 시산제를 올리고 올해 등산객들의 안전을 기원했다.

60세이상노인취업(구인/구직)알선

- 노인취업 지원센터 이용안내
 - ⇒ (사)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에서는 근로능력이 있고 건강한노인인력을 적재적소에 연결하여 주므로서 노인들의 소득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주요 사업으로는 구직희망 노인에 대한 상담/접수/알선과 구인업체방문/노인고용 권장,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지도와 노인취업 정보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제공
- 노인취업 지원센터
 - ⇒ 보건 복지부 지정 노인취업 전담기관으로 전국 284개소 운영
 - 법적근거
 - ⇒ 노인복지법 제23조2항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 ⇒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19조 : 무료직업 소개소 등록
 - 구인/구직 대상
 - ⇒ 60세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이나 구인을 원하는 개인,업체,기관
 - ※구직신청시 지참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자격증
 - 주요 알선직종 (민간취업)
 - ⇒ 단순노무 : 일반노무원, 현장보조원, 가정도우미, 주유원, 청소관련
 - ⇒ 수위/경비 : 건물관리인, 주차관리원,공장 또는 아파트 관리원
 - ⇒ 공동작업장 : 설치,운영,지도
 - 상담 및 문의처
 - ⇒ (사)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취업지원센터 (양양읍 남문1길14)
 - ⇒ 연락처 : ☎ 전국대표전화 1577-6065번, 033)672-7277번

「해빙기」 전기안전관리 요령

- 기온이 상승하면서 풀어진 전선연결 부분의 절연테이프는 다시 감아준다.
-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 침하하는 옥내 전기배관 손상으로 화재 및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시설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 겨울철 동안 전열기의 빈번한 사용으로 접속부가 헐거워지거나 파손된 콘센트는 새것으로 교체 사용한다.
- 비가 잦은 봄철 및 여름철에 대비하여 습기가 많은 지하실은 누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보일러 등 전기기기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접지(어스)시설을 한다.
- 누전에 의한 화재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매월 1회이상 적색 시험버튼을 눌러 고장여부를 확인한다.
- 전기안전 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북부지사 (지역번호 없이 1588-7500번)

양양읍 공고 제 2015 - 1호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03월 일
양 양 읍 장

1. 사업명 : 『기정자』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245번지
3. 도로길이 : 52.0m
4. 도로폭 : 3.0m
5. 도로면적 : 156.0㎡
6. 지번별 도로부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필지		942.0	156.0		
양양읍화일리	245	답	942.0	156.0	기정자	도로지정동의

양양읍 공고 제 2012 -5- 2호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변경)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 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변경)합니다.

2015년 02월 일
양 양 읍 장

1. 사업명 : 『김기화』건축신고에 따른 도로(변경)지정
2. 도로위치 : 양양군 양양읍 청곡리 333-4번지(당초 : 산 26번지)
3. 도로길이 : 당초 : 49.75m ⇒ 변경 : 47.50m
4. 도로폭 : 4.0m
5. 도로면적 : 당초 : 199.0㎡ ⇒ 변경 : 190.0㎡
6. 지번별 도로부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소유자	비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1필지		190.0	190.0		
양양읍청곡리	333-4	임야	190.0	190.0	김기화/이진숙	도로지정동의

나라사랑, 양양사랑 태극기 달기」안내

2015년은 제 96주년 3.1절 및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따라 애국선열의 본 고장인 우리군은 「나라사랑, 양양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도 각 가정마다 태극기 달기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기 다는 날

- 3월 1일(3.1절), 6월 6일(현충일), 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 3일(개천절)
10. 9일(한글날) ※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수 있음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주기 안내

- ▶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 내부청소주기
 1. 6개월마다 1회 이상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 숙박업, 식품 접객업의 정화조
 2. 연 1회 이상 : 1.항 외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 청소주기내 미 이행시 과태료 10만원이상 부과
- ▶ 내부청소수수료: l 당 15원 (단, 분뇨는 l 당 12원입니다.)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대행 업체

- 미화정화사 : 671-0017
- 양양정화사 : 672-1238
- 금성정화사 : 671-0063
- 삼성정화사 : 673-2496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시 유의사항

1. 정화조에는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만을 유입 시켜야 합니다.
 2.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전원을 항상 유지시켜야 하며, 기계시설의 정상작동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합니다.
- ※ 청소 안내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군청 환경관리과(670-2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우리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선착순 발급방식이 아닌 신청자 전원에게 발급하며, 가족 수와 관계없이 6세 이상(2009년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신청자 모두 5만원씩 지원 받는다.

신청방법은 기간 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발급되며, 온라인 발급은 4월 30일 까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hwanuricard.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카드를 기한(6월 30일)내 특별한 사유 없이 수령하지 않은 대상자와 기한(11월 30일)내 전액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다음해 카드 발급이 제한되며, 스포츠강좌 이용권 선정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통합문화이용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공연장과 서점 및 각종 여행지, 숙박시설, 스포츠 경기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마켓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우리지역에는 대아서점, 짬라인 양양, 숙박업소 등 6개 읍면에 243곳의 가맹점이 있다.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670-2225



습관적인 당신의 불법소각 소중한 산림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소각을할때 생기는 크고 작은 불씨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먼곳까지 날아가 큰 산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멈추세요!

- 발행일 : 2015. 3. 23(월)
- 발행인 : 양양군수
- 편집인 : 기획감시실장
- 발행처 : 양양군 Tel(033)670-2223 / Fax(033)670-2276

내가 버린 담배꽂초와 무분별한 취사가 소중한 산림을 순식간에 태워버립니다!

- 성냥, 라이터는 두고가고!
- 취사대신 도시락을 즐기고!
-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

산불예방! 녹색미래를 지키는 행복한 습관입니다



“떨감처럼 다 태워야 되겠습니까?”

